

부시 '새 이라크 정책' 대격돌 예고 민주

부시,미군 2만명 증파 등 '이라크판 뉴딜' 10일 발표

민주 "예산권 동원 실행 저지" 청문회 개최 등 맞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이라크 주둔병력을 2만명 이상 증원하고 수니파의 정치참여 확대와 10억달러 규모의 이라크인들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골자로 한 새 이라크 전략을 발표한다.

'새로운 진전'으로 명명될 이 정책은 수니-시아파간 종파 분쟁으로 사실상 내전상태에 돌입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비롯, 다수 거점 지역의 치안 확보를 위한 병력 2만명 이상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이라크군에 대한 훈련을 확대하고 미 병력 일부를 쿠웨이트 등 이라크 외곽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이라크 현 정부에 종파분쟁 해소와 이라크 안

정에 관한 일련의 목표치를 제시, 이라크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을 추종해 온 바트당(黨)을 포함한 수니파를 이라크 정치에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도 목표 설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중도 사퇴설이 나돌고 있는 알 말라키 이라크 총리의 거취에 대해 수니파 저항세력과 시아파 민방대간 종파 분쟁을 막기 위해 알 말라키 총리를 신임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는 그러나 이라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 시리아와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이라크연구그룹의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평화정착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새 이라크 정책은 무엇보다 과거 미국의 뉴딜 정책과 유사한, 이라크인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여기에는 최소한 1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재건 프로젝트도 추진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의회의 예산권을 행사해서라도 부시 대통령이 새 이라크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새해 벽두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새 이라크 전략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갖기로 방침을 세우고 상원은 이라크 전략 발표 당일인 10일과 11일, 하원은 11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각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열어 새 이라크 전략의 합당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워싱턴=연합뉴스



9일 출범한 일본 방위성 규마 후미오(久間幸生) 초대 방위상(오른쪽)과 고위 관리들이 도쿄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1954년 내각부외국(外局)으로 발족한 방위청은 53년만에 정식 부처로 승격, 방위청 장관도 정식 각료인 '방위상'으로 위상이 올라갔다. /로이터=연합뉴스

日 군사대국화 신호탄?

후세인 교수형 흉내 어린이 7명 사망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교수형 당하는 모습을 흉내내다 사망한 어린이가 전세계에서 모두 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의 사망 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동부 하프르 알-바틴에 사는 12세 소년으로, 지난 7일 의자에 올라서 줄을 목에 거는 장난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고 일간 알-하야트가 8일 보도했다.

에멘에서도 지난 3일과 6일 13살짜리 소년 2명이 각각 나무에 로프를 걸고 목을 땀다가 끝내 숨지고 말았다. 또 파키스탄에서도 9살짜리 소년이 지난달 31일 누나와 함께 교수형 놀이를 하다가 사망했으며, 인도 동부 카르타에서도 지난 4일 15세 소녀가 천장 환풍구에 목을 땀다가 숨졌다.

이밖에 미국에서도 10세 어린이가 후세인 흉내를 내다가 목숨을 잃었으며, 알제리에서는 12세 어린이를 수명이 후세인의 교수형 장면을 재연하다 실수로 같은 반 학우를 숨지게 하는 등 전세계에서 모두 7명이 후세인 흉내를 모방하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바이=키리애프-AP=연합뉴스

美 연초부터 '테러 공포' 확산

마이애미항 폭발물 발견 뉴욕 맨해튼선 가스 악취

미 마이애미항에서 폭발물이 발견되고 뉴욕 맨해튼에서는 정체불명의 냄새로 통근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 연초부터 미국 내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8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항에서 8일 크루즈선에 선적을 앞둔 화물터미에서 플라스틱 폭발물이 발견돼 경찰이 제거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마이애미 경찰과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이날 한 트럭이 내려놓고 간 화물터미에서 폭발물 탐지기계가 폭발물로 의심되는 이상한 꾸러미를 탐지,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긴급 출동해 폭발물을 확인한 뒤 폭파시켰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그러나이 폭발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이고 누가 이를 만들어 현장에 옮겨 왔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날 뉴욕시 맨해튼과 뉴저지주 일부 지역에서도 이상한 가스 냄새가 번져 일부 건물의 주민들이 대피하고 출근길 전철운행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9시경 맨해튼 지역에서 이상한 가스 같은 냄새가 번져 소방서로 신고전화가 쇄도하자 뉴욕시 및 뉴저지주 당국은 맨해튼과 뉴저지를 오가는 출퇴근 전철인 패스(PATH) 운행을 일부 중지시켰다.

엠포이스스테이트 빌딩 인근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학교와 아파트, 건물들에선 입주자들을 긴급히 대피시켰다. 특히 뉴저지주에선 가스 냄새가 질식돼 7명이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국토안보부 러스 노크 대변인은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면서 "테러의 징후나 긴박한 위협을 알리는 신뢰할 만한 정보는 없다"며 일단 테러와의 연계 가능성을 차단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유엔, 평화유지 역량 강화해야"

潘崇장 안보리서 첫 연설 정무차장에 美 인사 내정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유엔 역량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 총장은 또 정무담당 사무차장에 린 파스코 현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외신에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반 총장은 안보리에서 "유엔에 대해 예방 외교, 평화 구축, 갈등 관리 주문이 점점 늘 뿐 아니라 평화유지 수요도 전례없이 늘어날 것"이라며 "평화와 안보관련 유엔 모든 부서의 조직구조를 점검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中-日 '밀월시대' 접어드나

원자바오·후진타오 6월까지 잇따라 訪日

아베 총리는 가을께 공식 訪中

중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밀월시대'로 접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 불과 몇달전만해도 정상회담조차 열지 못할 만큼 극도로 악화됐던 관계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할 정도다.

일본 언론 및 소식통들에 따르면, 올들어 중·일 양국간의 정상외교가 활발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우선, 중국측에서는 원자바오 총리가 올 봄 일본을 방문하는데 이어 6월경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국빈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후 주석은 8일 일본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오타 아키히로 공명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6월 방일을 초청받고는 "초청을 흔쾌히 수락한다. 쌍방의 형편이 좋은 시기를 골라 방문하겠다고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또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오타 대표에게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간에는 현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올 가을을 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이에 앞서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기간에 원 총리와 아베 총리간 수뇌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회담의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양국간 중단됐던 정상 교류의 재개다. /도쿄=연합뉴스

사립 교사 임용고시 특강

대상 : 상·중등교사 <전과목> 해당됨
 시험과목 : 면접, 수업실기, 교과교육론
 시험실시 : 1월과 2월사이에 약(5~7회) 불수있음

사립교사가 될수있는 최고의 기회

서울 공명학원과 광주·전남고시학원 동시에 강의함
 교육행정직 수도권 사립학교 특강강의

전남고시학원 ☎ (062) 222-5105, 017-631-4467

프리미엄 에어컨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 에어컨
 전가전부터 방울 튼튼이외까지

프리미엄 난방기

고효율 난방기
 화력조절과 원거리 원격 난방까지

무등산업

에어컨+난방기+공기정화를 1대로

최대적 신기술

공기정화 기능

난방 기능

에어컨 기능

7월 10일 955-4222 / 080-701-7117